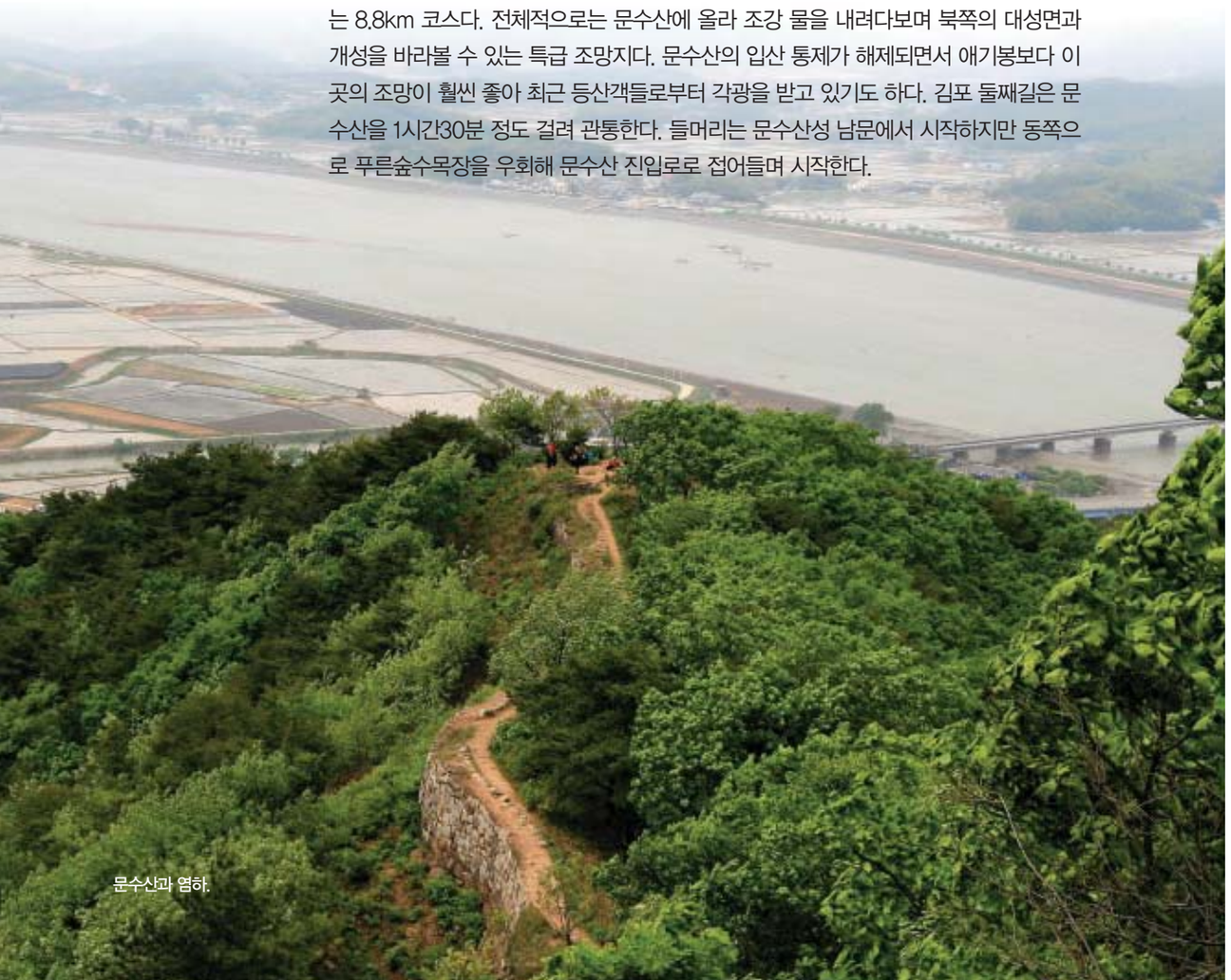
염하鹽河와 조강祖江 바라보며 통일의 염원에 젖다

김포 둘째길(문수산성~청룡회관~조강저수지~애기봉 입구)은 문수산성 남문에서 산성을 따라 오르다 동쪽으로 하산해 청룡회관과 조강저수지를 거친 후 애기봉 입구까지 걷는 8.8km 코스다. 전체적으로는 문수산에 올라 조강 물을 내려다보며 북쪽의 대성면과 개성을 바라볼 수 있는 특급 조망지다. 문수산의 입산 통제가 해제되면서 애기봉보다 이곳의 조망이 훨씬 좋아 최근 등산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다. 김포 둘째길은 문수산을 1시간30분 정도 걸려 관통한다. 들머리는 문수산성 남문에서 시작하지만 동쪽으로 푸른숲수목장을 우회해 문수산 진입로로 접어들며 시작한다.



문수산과 염하.

문수산(376m)은 48번 국도(고촌~강화)를 타고 강화대교를 건너기 직전 우측에 자리한 산으로 김포시에서 가장 높은 전형적인 육산의 형태를 갖춘 산이다. 백두대간이 지리산으로 뻗어 내려가다 속리산 천황봉에서 분기한 산줄기가 칠장산에서 다시 분기해 북서쪽으로 이어지며 한강 유역과 경기 서해안 지역의 산줄기를 타는 한남정맥으로서, 문수산은 김포평야의 들판과 낮은 산등성이를 넘어 강화도 앞 한강 하류의 바다 합수점에서 마지막으로 솟구쳐 오르다 끝을 맺는다.

문수산에 위치한 문수산성은 사적 제139호로 조선 19대 왕인 숙종 20년(1694년)에 바다로 침입해오는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쌓은 성이다. 본래 북문, 남문, 서문이 있었으나 병인양요(1866년) 때 다 소실된 것을 북문은 1995년, 남문은 2002년에 복원을 완료했다고 한다.

김포와 강화를 한눈에 조망하는 문수산

문수산은 강화를 바라보고 팔을 벌려 크게 싸안은 듯한 형태로 김포평야와 고양시 일대, 염하 건너 강화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수려한 주변경관을 자랑한다. 서북능선 아래로는 신라시대 고찰인 문수사(文殊寺)가 있고 그 아래로 산림욕장과 체력단련장이 있어 편안한 가족 산행지로 제격이다. 특히 이곳에서 강 건너 바라보이는 북한지역이 날씨가 청명할 때는 사람들의 움직임까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가까워 역사와 민족 분단의 현주소를 체험할 수 있는 산이기도 하다.

김포 둘째길을 걷기 위해 문수산의 주능선 격인 남문능선에 오르니 길은 완만해지고 성곽 바로 밑 안쪽에 나 있는 길을 따라 걷게 된다. 참나무와 소나무, 진달래가 어우러진 완만한 경사로를 따라 능선에 오르면 성곽 옆 등산로를 따라 염하와 조강이 바라다보인다. 여기서 10

문수산성 남문(왼쪽)과 문수산성.

문수산의 사계.

분쯤 더 오르면 벙커가 설치된 봉우리에 이르는데 처음으로 염하와 염하를 사이에 둔 김포시와 강화군을 조망할 수 있다. 김포와 강화 사이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강화해협이 강처럼 보이지만 소금기가 있는 짠 바닷물이라고 해서 염하(鹽河)라고 부르게 됐다고 한다.

강화대교와 염하를 내려다보며 좀 더 나아가면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한강 하구를 이뤄 조강(祖江)이라고 불리는 넓은 바다 같은 강을 만나게 된다. 한남정맥의 끝자락 나지막한 야산으로 떨어진 조강은 비무장지대(DMZ)로, 그 건너편은 분단되어 갈 수 없는 통한의 북한 땅이다. 조강이란 한반도 중부지방의 물줄기라는 물줄기는 모두 이곳에 모여 바다로 흘러든다고 해 할아버지 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됐다. 금강산의 옥수와 태백의 영험한 물이 모두 합쳐지는 이곳, 조강은 민족의 설움과 한을 모두 토해내듯 그 물줄기가 사뭇 장엄하다.

그 물줄기 안쪽을 문수산이 둘러싸고 있고, 사람들은 이제 그 의미를 되새기려 평화누리 김포 둘째길의 산을 오르고 있다. 나무 줄기마다 평화누리길을 알리는 리본이 바람에 날리며 사람들을 반긴다. 이마에 맺히기 시작하는 땀방울을 씻으며 좀 더 올라가니 갈림길에 닿고 좌측으로 팔각정과 전망대가 나타난다. 평상이 있는 쉼터는 등산객들로 붐빈다. 전망대에 서면

팔각정(왼쪽)과 하산길.

강화도의 강화산성, 용정리 · 월곶리 일대와 강화해협(염하)이 한강에서 갈라지는 한강 하구, 한강 건너 북녘 땅을 볼 수 있다.

허물어진 산성 위로 나 있는 등산로를 따라 산성을 넘으며 오른쪽으로 계속 펼쳐지는 절경에 취해 마음속으로 '역시 여행은 두발로 걷는 게 최고야' '필히 걷기여행의 전도사가 되어야겠다' 고 다짐하며 오른다. 너무도 아름다운 풍광에 카메라 셔터를 정신없이 누르다 보니 소중한 우리의 자연과 문화유산에 새삼 사랑을 느낀다. 일부 등산객들이 산성길을 올라타는 것이 문제다. 오죽하면 산중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상인마저 성곽 위의 등산객들에게 올라가면 안 된다고 호루라기를 다 불겠는가.

문수산에서 바라본
염하와 조강 파노라마.

청룡회관(왼쪽).
조강저수지.

무지개같이 둥근 홍예문

성곽을 우측에 두고 넓은 등산로를 따라 걸으면 좌측으로 곳곳에 나무의자가 설치돼 있고 우측 성곽 위에는 각종 깃발이 바람에 나부낀다. 잠시 후 홍예문(虹霓門)에 도착한다. 성문에 새겨진 한자가 참 어렵다. 홍예라는 것이 무지개라는 걸 상기하며 정말 문이 무지개같이 둥근 것이 성벽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여기서 김포 둘째길은 홍예문을 통해 우측 성 밖으로 김포대학, 청룡회관 방향으로 내려가야 한다. 정상까지 오르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누르고 시간 관계상 청룡회관 쪽으로 방향을 튼다. 이제부터는 하산길이다. 물들어가는 신록에 취해 내려가다 보니 멋들어진 구름다리가 나타난다. 청룡회관을 우회해 도로를 관통하는 출렁다리를 지나면 평화누리길을 잠시 벗어나 김포조각공원을 거칠 수 있다.

가는 길은 어느 그림 속의 잘 가꿔진 오솔길을 걷는 듯하다. 이 길을 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후회했을까? 이 아름다운 길을 놓칠 뻔했다니…. 오솔길에 평화누리길 리본과는 다른 색의 리본이 매여 있어 살펴보니 노랑과 연두색으로 된 김포시 리본이다.

김포조각공원에는 통일을 주제로 한 다수의 조각 작품이 전시돼 있다고 하니 시간을 여유롭게 쓸 필요가 있다. 산 능선과 자락에 자연스럽게 조성된 세계적 작가의 작품들과 진달래와 벚꽃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늦은 봄날의 오후가 더욱 나른해진다. 곳곳에 데크가 설치돼 있어 가족 단위로 피크닉을 즐길 수도 있다. 여기서 필자 일행은 맛있는 도시락과 준비한 막걸리로 허기를 달래고 다시 청룡회관 방향으로 회귀한다.

가장 한국적인 울안이길

청룡회관은 해병대를 거쳐 간 사람이라면 누구든 아는 해병의 명소다. 문수산 자락 무릎에 편안히 조성된 회관의 너른 마당에서는 등산객들이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청룡회관을 끼고 부대 담벼락을 따라 좌측으로 5분쯤 내려오면 다시 갈림길이 나오는데, 이정표를 보면 애기봉 방향으로 차도를 따라가다 보면 조강저수지가 나타난다. 작은 정자가 둑 위에 설치돼 있고 저수지가에는 낚시 좌대들이 보인다. 입구에 마을 노인회 사무실이 있어 이 낚시터를 관리하고 있다. 강태공 10여명이 낚시를 하고 있고, 한가로이 낚싯대를 던져놓고 책을 읽는 사람들도 있다. 가로의 보리밭을 지나고 신축부지 조성지를 지나

조강리 농가.

평화누리길 이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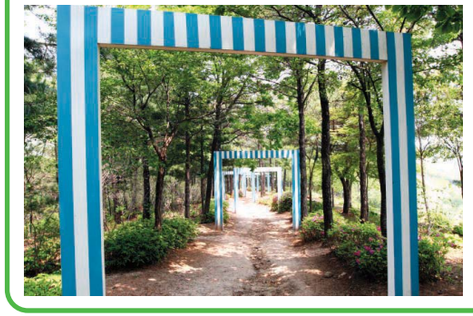
면, 우측으로 넓은 밭이 있으며 '올안이길' 이 나뉘는 삼거리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가 조강1리 마을 입구다.

삼거리에서 우측으로 방향으로 바꾸어 팜파스 공장을 지나 조강1리 마을회관에 닿으면 멀리 산 위로 애기봉 전망대가 보인다. 마을회관을 지나면 조강저수지 입구에 도달하는데, 도로를 따라 초소와 작은 수문이 있는 저수지 끝으로 가서 우측으로 저수지 둑길을 따라 걸어가면 중간중간에 정자와 저수지 물레방아도 설치돼 있다. 면적이 꽤 넓은 저수지에는 적당한 숫자의 강태공들이 세월과 바람을 낚고 있다. 수문조절기에 부착돼 있는 DMZ 스티커 화살표 방향이 잠시 필자를 혼란스럽게 한 것 이외에는 너무나도 편안한 오후의 저수지가 봄 하늘에 투영되고 있었다. 강태공들과 함께 시간을 잠시 멈춘 채 차 한 잔을 마시며 휴식을 취한다.

김포조각공원

문수산을 내려와 청룡회관을 지나 구름다리를 건너 산속 길을 걷다 보면 김포조각공원이 오솔길을 따라 조성돼 있다. 평화누리길은 아니지만 잠시 일탈 삼아 조각공원 팻말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조각공원이 나타난다. 김포조각공원은 분단의 현장인 김포에서 세계의 미술가들이 모여 통일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통일' 을 주제로 제작한 30여 점의 조각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 공원은 석조와 청동 등의 소재로 다양하게 만들어진 대형 작품들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특색인데, 자연과 인간과 예술의 조화로운 만남을 만끽할 수 있는 이상적인 예술공간으로 한결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가슴에 예술의 향기가 가득해진다. 조각공원을 내려오면 시원한 인공폭포가 반긴다.



해병대 부대 구호(왼쪽).
애기봉 표지.

강태공이 세월과 바람 낚는 조강저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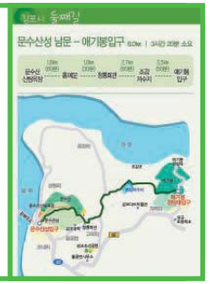
이제 조강2리 쪽으로 향한다. 김포 둘째길의 막바지 지점에 다가서고 있다. 이앙기로 모내기에 바쁜 마을 사람들을 구경하며 리본 표시를 따라 마을을 가다 보면 막다른 길이다 싶은 곳에 다다른다. 리본이 마을 뒤 야산 쪽으로 안내한다. 산길로 접어들면 오른쪽으로 묘 3기가 보이고, 바람이 불어 그런지 길은 더욱 황량하게 느껴진다. 잠시만 황량함을 참으면 고즈넉한 오솔길이 나온다. 평화누리길 리본과 김포시 리본이 같이 매여 있는 길이다. 길 옆으로는 둥굴레 군락지가 나타나고 능선에 올라서면 돌무더기가 나타난다. 그 옆 하산길 쪽으로 리본이 매여 있다.

호젓한 내리막 오솔길을 따라 조금 가면 애기봉 가는 도로를 만난다. 간이 정자에 매여 있는 평화누리길 리본이 정겹다. 왼쪽으로 방향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저 멀리 애기봉 검문소 간판이 보인다. 김포 둘째길의 종착지다. 시간이 좀 남아 검문소 밑의 마을로 들어가 보니 역시나 멋진 볼거리가 하나 있다. 450년 된 느티나무 보호수가 위용을 뽐내며 서 있다. 이제 김포 셋째길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자. G

글 · 사진 최영환(여행기고가) / 사진 제공 · 김포시청

교통 안내

▶**대중교통**
- 5호선 송정역→환승버스 1번, 88번 / 3호선 마두역→환승버스 96번
- 1호선 영등포역→환승버스 1번, 88번 / 2호선 신촌역→환승버스 3000번
- 1호선 부평역→환승버스 90번 / 인천터미널→환승버스 70번

▶**자가용** 서울외곽고속도로 김포IC-48번 국도, 60분 소요

▶**택시 호출** : 군하리택시 ☎ 031-987-4767, 988-7666